



### 표준 전문가 모집

기술표준원은국가표준화정책, 국가표준(KS) 심의 및 국제표준화작업에 참여할표준 전문가를공모한다.

모집부문과인원은교육정보·차세대전지·재난관리 등 총 33개 분야전문위원회로각 20명 이내로년중수시선발하게된다.

산업표준심의위원회는화안전·바이오·서비스·복지 등 52개 분야에대해서500명의산·학·연전문가를추천과공모를통해선정한다.

+ 표준위원회 운영(현재 외부 전문가 5,500여명

참여)

- 산업표준심의회 : 52개분야 488명, 전문위원회 : 426개분야 5,011명
- 근무처별 구성비 : 학계 44%, 연구기관 및 단체 29%, 기업체 21%, 기타 6%

이번에표준위원회위원으로선정되면3년간의임기로 국가표준(KS)과 국제표준투표문건의심의의를맡게되며, 우리나라대표단자격으로국제회의에참가하게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IEC) 기술위원회 의장, 간사, 작업그룹의장, 국제표준제안자들에대해서는국제회의참경비가지원된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지난 45여년간 유지해온 표준 위원회 운영체계를 국제표준화기구와 동일하게 개편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표준 경영 시대에 부응하고 새롭게 생겨나는 표준 분야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산·학·연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비자·경영자·품목별 단체 관련 이해당사자의 국가·국제표준에 대한 요구사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표준 수요자들이 국가표준 개발에 본격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하향식 국가표준 개발 방식을 수요 중심의 상향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금년부터 '표준개발협력기관제도'를 본격 도입, 관련 기관을 지정하고, 표준개발협력기관의 국가표준개발 지원을 위한 출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준개발협력기관제도가 도입되면, 관련 기관으로 지정된 법인·단체 등이 전문 분야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KS안을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된다.

### IT보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기술표준원은 25일(수) 산업기술시험원을 대최초로 정보보호시스템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T보안분야에서 세계 9번째 국제공인시험성적 발행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06년 5월 국제공통평가기준 상호인정협정(CCRA)에 가입함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제품시장의 문호가 전면 개방되었으며, CCRA에서 비롯된 보안분야 평가기관이 국제적 적합성평가기준(ISO/IEC 17025)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각 나라에서 IT제품·시스템의 시장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공인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산업기술시험원 등 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동시험원에서 발급하는 평가보고서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통용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을 놓고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 국내 정보보안제품 및 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노후승강기 일제점검

기술표준원은 승강기 검사기관과 보수업체 합동으로 오는 4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4개월에 걸쳐 15년 이상 된 노후승강기 1,820대를 대상으로 안전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86년 아시안게임 및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신도시 개발 붐으로 인하여 대규모로 설치된 승강기들이 노후화 되고 있으며, 15년 이상 된 노후승강기는 전체 승강기 34만 여대 중 12.3%인 4만 여대



이번 안전 실태 점검 내용은 승강기의 노후화로 인한 하역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브레이크 마모,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승강장 문과 문틀 사이 벌어짐 등 안전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 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위협 요소가 있는 노후 승강기에 대하여는 시·도 예정보하여 즉시 운행 중지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노후 승강기 용정밀 검사 기준 제정 등의 노후 승강기 특별 관리 방안 마련 할 계획이다.



### KS규격 인터넷 열람 200만회 육박

06년 한 해 동안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열람한 KS규격은 총 1,989천건으로 2005년에 비해 9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표준원이 07.4월 초 발표한 「06년 KS규격 열람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에서 찾아본 KS는 전체 규격수(06년 말 현재 22,058종)의 95.1%인 20,978종으로서 1개 규격의 평균 열람 횟수는 0.1회

였다.

‘열람 Best 10’의 대부분은 토목·건축 분야 산업과 관련 있는 규격들로 가장 많이 찾은 KS규격은 10,395회를 기록한 ‘금속재표인장시험편(규격번호: KSB 0801)’이었다.

흔히 ‘레미콘’이라 불리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KSF 4009)도 3위(7,651회)를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가장 많이 찾은 분야는 기계(325천회), 화학(256천회), 건축·토건(209천회)였다.

+ KS규격은 기계, 전기, 금속, 섬유 등 16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음

지난해 KS규격 이용자 분포는 산업계 61.0%, 학계 10.8%였으며, 특히 서비스업계 종사자들의 이용률도 9.4%에 달해 KS의 이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 회원제로 운영하는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회원들의 이용 실적 기준

인터넷을 통한 KS규격 열람은 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www.standard.go.kr](http://www.standard.go.kr))에서 03.6월 처음 시작하였다.

기술표준원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민간포탈 2개사와 처음으로 ‘KS규격정보제공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06.1월에 네이버와, 06.8월에는 엠파스와 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KS규격 열람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고 그 결과 연간 200만회에 이르는 열람 실적은 인 것이다.

연도별로는 인터넷 열람을 처음 시작한 03년 하반기에 259천회, 04년 578천회, 05년 1,039천회로

04~06년 기간중연평균28.0% 증가하였다.  
 기술표준원은금년중민간포탈1~2개사와추가로  
 협약을체결하여수요자들이편리하게KS규격을이  
 용할수있도록합방침이다.

### 몽고공무원 표준교육 실시

기술표준원은몽고와의MOU 체결이후선진 한국  
 의 표준정책및 적합성평가능력배양구축및 운영  
 경험을전수하기위해지난5월1일부터오는3일까  
 지3일간전문가를몽고에파견하여특별연수프로  
 그램에관한표준화교육을실시했다.

이번 연수는몽고표준기관(MASM)의 초청을받아  
 추진되는것으로, 주요전수내용은▲국가표준화  
 전략▲국제표준화활동▲법정계량및 측정▲적합  
 성평가제도▲KS 인증제도▲ISO9001/14000 교육  
 등으로구성되었으며, 강의외투론방식으로진행되  
 었다.

이 연수과정에서참가한몽고공무원들은표준업무를  
 담당하는직원들로구성되었으며, 한국표준화정  
 책을배우는것은물론적합성및 인증관련종합적  
 능력을배양함로서국제수준으로한단계업그레이  
 드될기회를가졌다.

이교육과정은한국의표준및 인증제도이용·혁  
 신경험을개발도상국과공유함으로써한국의국제  
 적 위상을높이는데큰 기여를한 것"으로평가되었  
 고, 표준협력연수를통해네트워크구축과아울러  
 양국간교류 협력의폭을 넓히는기회를지속적으  
 로가질것이다.



### 바이오 의약품 관리기준 홈페이지 개설

기술표준원은제약업계의"생산및 품질관리기준  
 (GMP)" 마련요구에부응하기위해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의일환으로「바이오의약품생산시설표준  
 화기반구축사업」을 05년부터5개년계획으로추진  
 해 미국의CGMP와 유럽의EU-GMP 기준에적합한  
 바이오의약품의제조공정을개발· 운영하고품질  
 관리에활용할수 있는국내 GMP 표준화기반구축  
 에 전력하고있어 제약업계의세계시장진출및 경  
 쟁력 제고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제조  
 공장의 구조, 설비는 물론 원료구입부터 보관, 제  
 조, 품질관리· 보증, 포장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기본규정

바이오의약품(제조2천억)은바이오산업시(제조8천  
 억)의약 40%를 차지하며(05년 기준), 우리나라는  
 향후 세계시장규모(2015년 2,000억 \$ 예상)의10%  
 에 해당하는200억 \$ 수출을달성하여, 세계위의  
 수출국이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미국FDA 등 선진국은의약품제조할때 유효성  
 (Efficacy), 안전성(Safety) 및안정성(Stability)을 재  
 현성있게 확보하기위해CGMP 규정을엄격하게  
 적용하고있을뿐만아니라수입허가에 포함드시요  
 구하고있다.

따라서선진국의GMP 기술을조속히확보하지못  
 하면국내에서개발된바이오의약품의세계시장진  
 입이 어렵기때문에국내 제약업계가적극적으로  
 대응할필요성이제고되어왔다.

이에 기술표준원은한국생물공학회와협력하여  
 바이오의약품생산시설의표준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하여미국의CGMP를 기초로바이오의약품의생산공정및 시설관련가이드라인이나표준작업절차서를개발하여제약업계에서공동활용할수 있도록 노력하고있다.

동 사업의마스터플랜으로높을적GMP 운영방향을 제시한매뉴얼1종, 시스템별목적달성을위한 가이드라인28종 및 표준작업절차서50 여종의작성을목표하고있다.

4월 23일(월) 오픈할 CGMP 전용 웹사이트(www.cgmp.or.kr)에서 그동안 완성된품질매뉴얼, 가이드라인8종 및 표준작업절차서2종과 생물산업분류체계, 생물공학기술분류코드등을누구나자유롭게이용할수 있도록제공하여, 국내제약업계가선진국의“생산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조속히구축할수 있도록토대를마련하는등, 바이오의약품의계시장진출을위한지원정책을한층강화해나갈예정이다.



## 한국 RFID 기술 국제표준(ISO)으로

우리나라이동통신용무선인식(mRFID) 서비스기술이국제표준(ISO)으로 채택됨에따라RFID 기반의 이동통신서비스시장선점과유비쿼터스센서

네트워크(USN) 시대를앞당길수있을것임을마련하게되었다.

기술표준원에따르면정보통신분야국제표준을관장하고있는ISO의 정보통신기술위원회(ISO/TC1/SC6) 국제표준화회의에서우리나라가제안한객체식별자(OID) 기술이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의 적극적인지지를받아지난4월 20일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

이번에 채택된“RFID기반 응용서비스용객체식별자(OID)”는 무선인식(RFID)태그를이동통신용단말기에서활용가능하게하는 새로운기술로, 앞으로는이동통신용단말기를통하여무선인식(RFID)태그가부착된상품및 문화등의 정보를손안에서 볼수있는서비스시대가능하게된다.

- 현재 SKT와 KTF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서와 인정보서비스, 택시안심 서비스 등과 같은 모바일 RFID를 이용한 시범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으며 관광, 한우, 식품분야 등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개발한이번기술은세계무역기구(WTO)에서인정한양대공적국제표준화기구인ISO와 ITU가 동시에동일한표준으로채택함에 따라2010년예약 7천억원규모로예상되는국내 시장보호는물론 세계시장진출에확고한교두보를마련하게되었다.

그 동안“IT강국”이라는명예에도불구하고국제표준화에있어수혜자(Taker)였던우리나라로써는이번 국제표준채택을계기로생산자(Maker)로써 역할 전환과더불어국내연구소및 관련산업계의국제표준화활동참여가활발해질것으로기대된다.

기술표준원은우리나라가국제의장을수입하고있는 JTC1/SC6 기술위원회입지를활용하여, 향후 모바일무선인식(mRFID)분야국제표준반영이확산될수있도록표준화활동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강화

기술표준원은어린이용품으로인한소비자피해사례가꾸준히증가함에따라 '어린이날'이포함된 '가정의달' 5월을전후하여어린이들을안전사고로부터보호하기위한예방대책을활련하였다.

\* 공산품 중 어린이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년중 5월에 가장 많이 발생

먼저, 기술표준원은다양화되는어린이용품의안전관리강화를위하여공산품안전관리제도관련하면서안전관리대상어린이용품을기존20개 품목에서28개 품목으로확대하였다.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놀이기구안전위해도가높은11개 품목을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확정하여기존의제품검사에서제품의생산단계에서부터안전관리를점검하는공장심사중심사카되었다.

학용품, 완구등 17개 품목은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지정하여업체가자율적으로안전관리를실시하고안전기준에적합한제품임을정부에신고후유통시키도록의무해었다.

특히, 이번개편에서는안전관리대상품목확대외에도안전한어린이용품이제조또는수입되어유통되도록품목별안전관리기준을강화하였다. 어린이놀이기구재료 중 인체와접촉하는부분에

대해CCA(크롬-구리-비소화합물) 방부목재의용이금지되었다.

폼알데하이드, 비스페놀A 뿜해중금속등 40종의 유해화학물질또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을지정하여 어린이용품에사용을금지하도록규정되었다. 완구의안전관리적용범위를기존작동완구에서비작동완구까지확대하고크롬, 납, 수은및 가소제등 유해화학물에대한안전기준이강화되었다.

또한, 기술표준원은어린이용품성수기인5월에공산품의위해로부터어린이를보호하기위하여교육·홍보를통해어린이안전문화를조성키로하였다.

수도권학교주변문방구및 어린이용품도소매상을대상으로유통실태조사를실시하면서어린이용품에 대한안전관리제도를홍보함으로써유해어린이용품유통을사전에예방하도록판매업체에대한어린이안전의식을고취시켰다.

비비탄총등 사용자의남용 및 부주의에의한안전사고의예방을위하여품목별사용상주의사항및 교육프로그램을제작하여초등학교와영유아보육



시설에 배포하였다.

※ 어린이용품 구입요령, 안전한 사용방법 및 사고발생시 대처법 등에 대한 지침서와 어린이용품, 전기용품, 승강기의 안전한 이용방법 교육용 동영상

어린이용품을포함한불법· 불량공산품의유통차단과안전사고예방을위한시장감시기능의강화등사전안전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지속적으로관리할계획이다.

시민단체등을 활용하여전국적인네트웍을갖춘 소비자제품안전감시단을 구성하여년중 계속적으로불량· 불법공산품의유통을감시하고특히5월에는어린이주간을맞아 안전사고위험이큰 비비탄총, 인라인롤러스케이팅 어린이용품을중점적으로모니터링 실시하였다.

공산품의수입 증가에따라 관세청과협업하여안전인증및 자율안전확인대상18개 품목을세관장확대대상품목으로지정하여불법· 불량어린이용품의국내반입을사전에차단 할예정이다.



- KPS : Korea Products Safety

### 건물 자동제어 시스템 개발

지진의 강도에 따라 건물 내 기계설비를 단계별로 제어하여 지진 발생 후 가스폭발 및 전기누전 등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진 감지 기능을 이용한 건물 자동 제어 시스템”이 개발

되어,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신제품 인증마크(NEP 마크: New Excellent Product)를 받았다.



이번 NEP 인증으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야 할 대상 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지진 발생 시 고층 건물 및 주요 산업 시설의 지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표준원은 지진 발생 시 건물 자동 제어 시스템과 같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 기술적 과급 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17개 제품을 07년 1/4 분기에 신제품으로 인증하였다. (신청 94건, 인증률 18%)

※ '07년 3월까지 유효기간(3년)내 NEP 인증건수 : 총 611건

이번 인증된 신제품들은 관련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만 51건에 달하는 등 대부분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제품으로 시장 면면을 살펴 보았다.

우리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품으로서는,

- CCD 센서 카메라를 통하여 에어컨을 기존 500회/s에서 1000 ~ 1200회/s로 개발하여 불량미 선별력이 우수한 “고속 에어컨을 장착한 곡물 선별기”
- 식당에서 주문을 받을 때 100m 이내에서 자유롭게 주문사항을 입력하면 카운터와 주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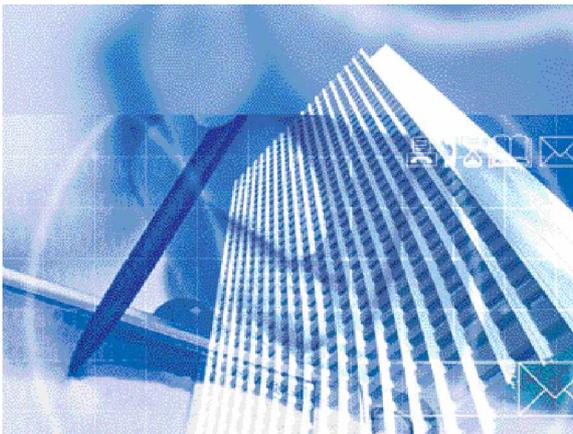
무선으로 주문사항이 전송되어 주문전표를 자동출력하는 “식당전용 무선주문 단말기”

- 고분자 흡수체를 이용하여 겨울철 수도 계량기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동파 방지용 수도미터” 등이 있음

산업용에 쓰이는 신제품으로는,

- LCD의 픽셀의 라인 CCD에 배율 1.0배에서 1.6배까지 가변 하고, 최소 4.4um에서 7um까지의 LCD표면의 미세결함도 잡아낼 수 있도록 한 “LCD 검사용 줌 렌즈”
- 기존 단순 USB 저장장치와는 달리 바이러스 백신 드라이브, 음반, 전화기, 동영상 등을 사용자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 USB”는 저장된 콘텐츠와 응용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숨은영역(Hidden Area)”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기술임

한편, 이들 인증제품들은 정부부처, 지자체 및 정부 산하기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20% 이상 의무구매하여야 하는 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업체의 매출액 증가에 많은 기여로 어려움 중소기업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RFID 실용화 앞당길 국가표준 확충

확충한다. RFID 식별코드 등 표준 현안이 해결되어, RFID 산업· 공공부문 확산 등 RFID 실용화를 앞당기고 정부의 RFID 산업화 정책 도힘을 받을 전망이다.

- + 식별코드 등 16종의 RFID 국가표준이 확충되면, 유통물류, 식품, 의약품, 교통 관리 등 산업, 국민생활, 공공서비스 분야에 표준 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어, RFID 태그 간 호환성 확보, RFID 기기의 품질 향상 등이 기대된다.

그간 RFID 태그 통신 방식 등 산업기반 분야의 국가표준 27종이 제정되어, 민간· 공공시범사업에 적용되어왔고, 최근에는 공공부문으로부터 RFID 태그 정보를 혼선 없이 인식하기 위한 통일된 식별코드 등의 국가표준 신규 제정이 요구되어왔다.

기술표준원 등 RFID 국제 식별코드 발급을 위해, ISO 국제표준 체계에 따라, 국내에 코드 발급 기관을 지정하고 내달부터 정부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식별코드 발급 업무를 시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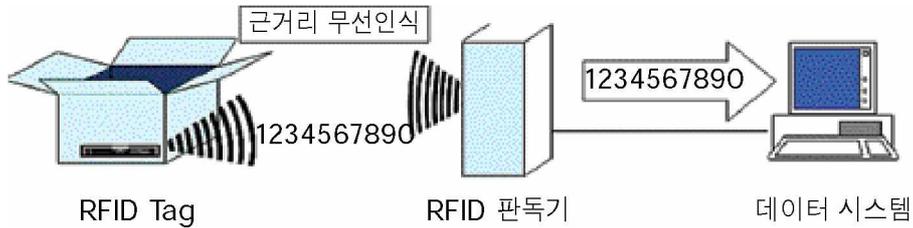
- + KS 식별코드는 제조· 유통물류 등 산업부문에서 확산이 전망되는 EPC(전자상품코드) 코드의 적용 대상이 아닌 공공 및 서비스 부문의 RFID 사업에 활용될 전망이다.

기술표준원 등 RFID 산업화 지원을 위해, '08년까지 상품, 동물, 차량 등과 관련된 RFID 국가표준 60여종을 정비하고 산업계에 실시간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번 KS 16종이 추가되면, RFID 국가표준은 금년 중 총 43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 + RFID 국가표준: '05년 14종 → '06년 13종 → '07년 16종 → '08년 17종

RFID 주파수, 식별코드 등 핵심 국가표준 43종이 금

무선인식(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



년까지 정비되면, 정부부처· 지자체, 산업 단위는 이들 국가표준을 활용하여 RFID 확산사업에 필요한 산업별, 공공사업별 실행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 실행 가이드라인 : 응용분야별 최적 RFID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 코드, 설치 및 시험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쉬운 가이드라인 형태로 규정하여, 산업계 확산을 위한 지침서로 사용. 주로 국가표준을 인용함.

기술표준원은 한국표준협회, 한국유통물류진흥원

공동으로 18일(수) 메리엇호텔에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RFID 표준 동향 세미나 및 KS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번 마련된 국가표준 16종의 내용과 향후 RFID 산업화를 위한 국제· 국가표준화 대응 방안 등을 산업계에 공표하였다.

기술표준 2007. 5

